

17일은 '폐의 날' '담배부터 끊읍시다'

가쁜 숨·젖은 기침... '폐의 경고'

폐암, 조기 진단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인 폐암. 그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에 의해 유발된다. 이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기간도 전체 흡연기간도 폐암 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은 평균 22배, 여성인 경우도 12배나 된다. 특히 하루 두 갑 이상을 피울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무려 64배까지 증가한다.

문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것. 부산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영미 과장은 "폐암은 발생 초기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혹 증상이 있더라도 다른 폐질환에서도 흔히 보이는 비(非)특이적 증상들"이라며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첫 진단 때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 폐암의 20~2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COPD, 이 고동스러운 병이여

폐암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환자들 더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기관지에 생기는 '만성 기관지염'과 폐에 생기는 '폐기종'을 합해서 부르는 병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이 두 가지 상태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

이 병에 걸리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나서 남들 앞에 나서기 힘들 뿐 아니라 세수나 옷 입을 일상적인 기본 동작조차 힘들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도 중증 환자의 3분 1은 직장 등 사회생활을 그만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이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지난 2001년 전국 조사에서 45세 이상 성인인구의 17.2%(남자 26%, 여자 10%)에서 이 병이 발견됐다. 10명 중 한두 명은 이 병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환자 수도 1999년 163만명에서 2002년 210만명으로 3년 사이에 28.8%가 늘어났다. 사망자 수 역시 20년 전에 비해 4배로 증가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김주인 교수(호흡기내과)는 "앞으로 2020년이 되면 COPD가 세계의 3대 사망원인, 5대 장애질환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내에선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에게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호흡기학회가 오는

만성기침, 선 목소리, 객혈,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호흡 곤란, 발열, 천명음, 만성 기관지염, 폐렴, 흉통 등의 여러 관련증상이 있더라도 특별히 폐암의 증상이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폐암 1기~3기 전기만 수술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흡연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반복돼 나타나면 무엇보다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폐암의 진단은 여러 임상증상과 병력 외에 영상학적 검사(X선 및 흉부 CT촬영 등), 기관지내시경 검사, 폐조직 검사, 객담 암세포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때 가능한 한 여러 검사를 복합적으로 받아보는 게 좋다. 폐암은 영상학적 검사만으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1~4시 부산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강당 등 전국 6곳에서 COPD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제4회 폐의 날' 행사를 여는 것도 이 때.

특히 COPD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나마 제3단계 중증 이전엔 금연효과나 기관지 확장제 같은 흡입약,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약으로 버텨낼 수 있으나 그 이후 단계에선 집에서 24시간 산소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폐 이식 같은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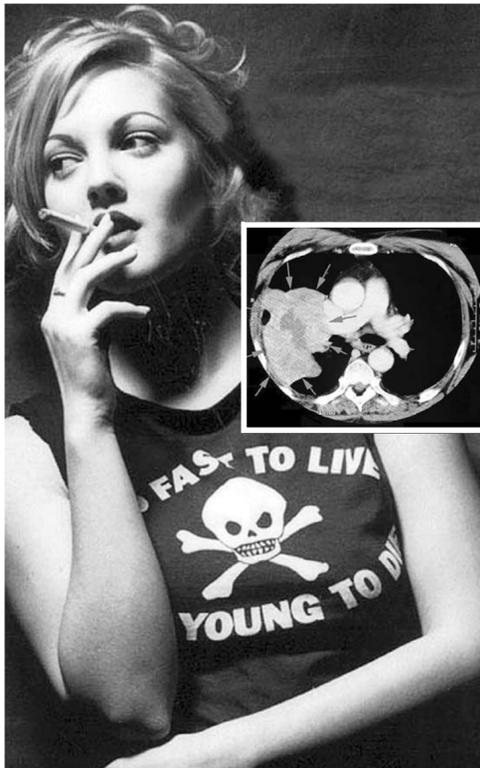
COPD 역시 조기 진단이 어렵다. 하지만 45세 이상의 중년 흡연자가 스그의 매일 기침을 한다 스소량의 끈끈한 하얀 가래가 나온다 스숨이 차다 스갑기가 잦고 스숨소리가 쉼쉼거린다 스체중이 감소한다 등의 주요 증상들이 나타나면 흉부 방사선검사는 물론 집중적인 폐기능 검사, 흉부 CT 검사 등을 해봐야 한다.

김 교수는 "약물치료와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호흡곤란이 줄어들고 폐 기능도 부분적으로 호전을 보여 사망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병이 생기기 전에 담배를 끊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윤성철기자 cheol@busanilbo.com

도움말=인제대 부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인 교수 부산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영미 과장

언제부터인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왔다. 잠을 잘 때 기침을 심하게 하려던 얘기도 아내에게서 들었다. 이제 나이 40대 후반. 아직 건강에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던 강수훈(49)씨는 최근 병원에 갔다 큰 충격을 받았다. 폐암 3기. '지금 당장 수술 낫자를 잡자'는 의사 얘기에 망연자실한 상태.

사망률 1위 폐암 원인 80%가 흡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급증 조기발견 힘든 만큼 정밀검사 필수



흡연은 치명적인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악질적인 원인이다. 오른쪽 가운데는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흉부가슴CT 사진.

의료현장 25시 ■ 쓰러지는 의사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부산 의료계 잇단 부름

#장면 1
"오전 6시30분 출근. 오전 7시 고신대 복음병원 도착, 아침 회의. 오전 7시 30분 회진. 오전 9시 외래환자 진료(4분에 한 명꼴로 80명 환자 진료). 오후 2시 점심식사(인근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 등으로 최대한 간단히). 오후 2시10분 혈관조영촬영 시술(하루 평균 3~4명). 오후 5시 심장병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 오후 8시 논문 등 자료정리. 오후 10시 귀가."

고신대 심장내과 차태준 교수의 하루다. 부정맥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는 유명세 때문에 밀려드는 환자로 몸살을 앓는다. 쇼크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상대로 혈관조영촬영을 한 후 환자가 깨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환자실을 떠날 수가 없다.

부산대학병원 비뇨기과 정문기 교수의 하루다. 비뇨기과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일의 부하가 많다. 얼마 전 후배 의사들에게 자신의 일을 일부 나누어 주었지만 시간에 쫓기는 마찬가지다.

#장면 3
이달 초 모 대학병원 내과 교수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패자를 기원하던 가족과 동료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중환자실에서 9일 만에 소천(召天)했다. 그는 4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추천한 '베스트 닥터 in 부산'에 선정되기도 한 차세대 대표주자로 차세대 함암제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 중이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반의 모 대학병원 실력파 교수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모친이 귀천(歸)으로 돌아갈 무렵이면 거의 파김치가 된다.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다음날 다시 출근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를 '하숙생' 취급한다. 심장내과 의사들의 생활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장면 2
"오전 7시30분 출근. 오전 8시 부산대학병원 도착. 오전 9시30분 외래환자 진료(6분에 한 명꼴로 진료). 오후 2시30분 점심식사(환자가 많아 항상 식사시간이 늦다. 요일마다 스케줄이 달라 식사시간도 다르다). 오후 3시30분 연구실에서 논문 정리. 오후 7시 학회 등 모임 참가. 오후 10시 귀가."

대학병원 의사들이 쓰러지고 있다. 과중한 업무 부하, 스트레스 등으로 자신의 몸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업무 강도와 인력 구조로 본다면 병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병원당국의 의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시스팀에서 논문 정리, 오후 7시 학회 등 모임 참가, 오후 10시 귀가.

김병근기자 gun39@

알림

제73회 부일한방교실

주제 : 두통의 한방치료



부산일보사는 동의대학교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부일한방교실 무료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2시
- ▲장 소=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부산진역 맞은편)
- ▲강 사=김철우(동의대학교 한방병원 내과 과장) 교수
- ▲문의 처=동의대학교 한방병원 051-850-8519
- 부산일보사 문화사업국 051-461-4438
- ▲주 최= 부산일보사·동의대학교 한방병원

Click! 클릭닉

■ 탈모치료 '모낭관 이식술'



시간·노력 들지만 굵은 직모 효과 커

탈모는 먼저 원인을 진단한 후 치료방법을 찾아야 한다. 탈모가 스트레스나 두피관리 소홀로 생긴 경우는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이나 남성호르몬 과다로 인한 경우는 약물이나 모발이식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발이식술에는 크게 미니 이식술과 모낭관 이식술이 있다. 미니 이식술은 5~97개의 모발을 한꺼번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식 후 상처가 아물면서 이식 모발편이 쪼그라들어 마치 모를 심은 것처럼 하나의 모공에서 5~9개의 모발이 자라나 이식 부분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때문에 항상 머리를 밀고 축 늘어뜨려야 해아라인을 감출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모낭관 이식술은 모발을 모낭 단위로 하나씩 심는 방법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크다. 특히 굵고 검은 직모를 가진 한국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 방식은 모낭(구멍)에 1~37개의 모발이 묻혀 있음 단위로 이식하기 때문에 이식한 모발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된다. 마라토니 이봉주 선수가 받은 모발이식술이 바로 이 방법이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앞머리와 윗머리, 정수리 부위의 모낭이 탈모가 되는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뒷머리의 모낭은 유전적인 요인을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탈모 부위로 옮겨

심더라도 잘 자라나는 것이 이미 임상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 식 과정에서 두피를 절개하고 봉합하는데 뒷머리 부위는 모낭을 떼낸 후에도 모발이 흉터를 자연스럽게 덮어주기 때문에 마용효과도 뛰어나다.

단순히 두피에서 뽑은 모발은 모낭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식하더라도 잘 자라지 못하며 타인의 모낭을 심은 경우에도 이식 거부반응이 일어나 자라지 못한다.

서면 캄리리성형외과 주교직 원장은 "모낭 이식술에서는 이식 각도, 배열방향 등이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두피상태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피치료를 함께 해 주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두피의 탈모환자뿐 아니라 췌장질환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성 무모증 및 빈모증 환자의 모발이식도 크게 늘고 있다.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음모가 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에 한 번의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눈썹의 모발이 부족하거나 형태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시행하는데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해 모발이식 수술 중 가장 어려운 수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이마가 넓거나 헤어라인의 교정을 위해서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김병근기자

의료 다이제스트

“레비트라가 강하고 빠르다”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레비트라' (바이엘헬스케어)의 임상 효능이 '비아그라' (한국화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엘헬스케어 측은 9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3층 펠름에서 부산지역 비뇨기과·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레비트라 vs. 비아그라'의 비교 임상연구'를 열고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남성 1천여명을 대상으로 4주간 비교 시험한 결과, 레비트라와 발기 성공률(83.9%)과 발기 유지 및 성관계 성공률(74.0%)이 비아그라(각각 82.2%, 72.0%)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고 밝혔다. 이 통계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성연구학회 학술대회'(9월 19일)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인제대 비뇨기과 민권식 교수는 이와 관련, "레비트라가 다른 치료제보다 효능 측면에서 확실히 조금 더 빠르고 강하다는 느낌이 있었으나 이번 연구 결과는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은성의료재단 6번째 병원 설립

▲부산권에 5개의 '좋은OO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은성의료재단(이사장 구정희)이 또 하나의 병원을 설립했다. 동래구 낙민동 동부산대학 건물 5개 층을 임차, 200병상 규모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밟고 있는 '좋은애인병원'이 그것. 하지만 이번엔 노인성질환 재활 치료전문병원이다. 은성의료재단 측은 향후 이런 식의 노인재활치료전문병원을 2~3개 더 세워 별도의 노인병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051-520-7700.

위암 완치환자 초청 행사

▲고신대 복음병원은 1996~2001년 고신대 소화기내과 및 외과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완치(5년 이상 생존)된 환자들을 초청, 18일 오후 2시 의대 대강당(성산관)에서 '위암을 이긴 사람들의 행진'이란 주제로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위암 완치환자들을 추켜세워 초청 행사를 갖는 것은 국내 최초다. 051-990-6770.

대장암 무료 건강 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사무장 남서중)는 16일 오후 2시 부산지부 5층 세미나실에서 '대장암'을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강사는 정태식 고신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051-557-3701.

'골다공증 시민강좌' 21일

▲동아대병원은 21일 오후 4시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제3회 골다공증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강사 한성호(가정의학과) 박미경(내분비내과) 이명진(정형외과) 교수. 051-240-5290.

신장암 영상진단 최신치료법 교재 출간

동아대 윤성국 교수 외

동아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윤성국(사진) 교수가 신장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들과 함께 신장암의 영상진단과 최신 치료법을 다룬 전문 의학서 '신장암의 영상진단법(Imaging of Kidney Cancer)'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X선과 초음파,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CT(양전자단층촬영) 등 전통적인 영상진단법에서 최신의 영상진단법까지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교재다.

특히 이 교재는 신장암의 진단과 병의 파급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각 영상진단법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있어 방사선과를 비롯



해 종양학자 비뇨기과 전문의들에게 유용한 텍스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집필에는 엘리엇 피쉬먼, 피터 톨러, 낸시 케리 등 신장암 분야에 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대가들이 참여했다.

윤 교수가 집필한 '집합관암'은 전체 신장암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이행상피세포암, 림프종, 전이암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치료방식에 결정적 중요하다. 특히 이 집합관암은 악성도가 높고 임파선과 타 장기로의 전이가 잦아 환자의 60%가 3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일반적인 신장암에 비해 예후가 훨씬 나빠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김병근기자

“성형외과 비만치료 울트라웨이프가 가장 안전”

부산 온 런던브리지병원장

“비만 치료를 위한 성형술은 1974년 지방흡입술이 처음 나온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죠. 2000년대 들어선 한 때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 데 주목했으나 최근엔 다시 지방세포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울트라웨이프”, 즉 체외충격파 지방세포파괴술의 아시아 홍보를 위해 지난 6일 부산 서면 ABC메디칼센터



를 찾은 크리스토퍼 J 잉글필드(사진) 영국 런던브리지병원장은 “지방을 제거하거나 지방 크기를 줄이는 여러 방법 중에서 울트라웨이프가 가장 최신의 기법”이라 말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이란 측면에서도 울트라웨이프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윤성철기자